

탄압받는 민중과 함께한

한신대학교 수유캠퍼스

글 · 홍인기 icwriters@hanmail.net
사진 · 황석선 stonesok@kdemo.or.kr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에게서 예수를 보다

1970년 11월 13일 서울 청계천5가에서 피복 노동자로 일하던 전태일이 분신자살했다. 열악한 환경에서 재봉 일을 하던 여공이 과로 끝에 폐병에 걸리자 해고되는 '노동지옥' 현실을 전태일은 사회 각계각층에 호소했다. 그러나 폭압적 근대화와 돌진적 성장신화에 매몰돼 있던 당시, 그 누구도 그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결국 전태일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찬바람 길 위에서 몸이 불을 살랐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그가 죽어가면서 울부짖은 마지막 말이다.

세상이 놀랐다. 까마득히 잊혔던 노동자들의 참혹한 현실을 접한 사람들은 쇠망치로 뒤통수를 두들겨 맞은 듯 충격에 사로잡혔다. 이윽고 민주화와 함께 민중 생존권 문제가 시대의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기독교인들, 특히 진보적인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민중의 고난에 대해 한국 기독교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하는 뼈아픈 자책과 반성이 일었다.

그 중심에 한신대학교(서울시 성북구 수유리 산 129번지)가 있었다. 1940년 조선 신학교로 출범한 이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신학연구와 목회자 양성에 힘을 기울이던 캠퍼스가 전태일 사건으로 비로소 오랜 잠에서 깨어났다.

"한신대 학생운동에는 숨기고 싶은 원죄 같은 게 있습니다. 전태일이 우리를 대신해 불꽃으로 젊음을 바친 뒤에야 민주화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학교 설립 과정에서 정권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사실 때문에 1960년대에는 나서기가 쉽지 않았나 합니다. 그래서 4·19나 6·3에도 적극 참여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김창주(신학과 조교수) 씨의 말이다. 한신대 학생운동은 그러한 반성으로 출발했으며, 분신과 함께 민중 사이에 다시 살아난 전태일의 삶에서 새로운 신앙의 길, 예수를 만나게 된다고 했다. 그것이 곧 소외된 약자, 노동자와 농민 도시빈민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참모습이어서 학생들은 민주화운동의 진보적 실천의 길로 나간다.

스승과 학생, 한 몸으로 고난의 길을 가다

1973년 11월 15일, 김정준 학장과 10여명의 교수들은 학장실에 모여 신앙의 양심과 교육자의 도리를 저버릴 수 없다는 의지로 삭발을 감행했다. '민주주의 회복과 전 국민의 인간화를 촉구' 하는 선언문을 발표한 뒤였다. 민주회복을 위해 반정부운동에 가담한 학생들을 제적하지 않으면 교수들을 해임하겠다고 협박하는 독재정권에 맞서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에 자극받은 학생들 또한 예배실에 모여 함께 삭발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 확립', '중앙정보부 해체', '학원·언론자유 보장', '구속학



▲ 1973년 11월 15일, 김정준 학장과 10여명의 교수(안병무 등)들은 학장실에 모여 신앙의 양심과 교육자의 도리를 저버릴 수 없다는 의지로 삭발을 감행했다. 왼쪽부터 김경재 교수, 고 안병무 박사, 김이곤 교수, 학장이던 고 김정준 박사, 서 있는 이가 장일조 교수.

▼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휴교를 한 1975년 한신대 캠퍼스 사진제공 한신대학교

생 석방' 등 8개항의 결의안과 '폭력 앞에 조금도 비굴하지 않으며 신앙적 양심을 추호도 굽히지 말 것' 등 행동강령을 결의하고, 일본의 경제침략을 비판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올바른 경제분배 질서확립과 빈부격차 해소,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 수립, 외자도입 중단, 김대중 사건과 관련된 한일경제 흑막의 공개, 전 언론은 일본의 경제침략 현황을 고할 것 등 4개항이었다. 교수와 학생들은 삭발한 채 40일 동안 릴레이식 기도회를 열었다(때마침 흰 고무신에 흰 두루마기를 펄럭이며 '논어'를 강의하러 왔던 함석헌 선생도 삭발에 동참했다).

그 뒤 한신대는 무기휴교-시위-연행-구속-제적이 거듭되는 탄압에 시달려야만 했다. 그리고 '1975~77년 고난선언' 등 지속적으로 유신독재에 항거한다.

"한신대의 학생운동은 신앙과 학문의 자유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것이 엄혹한 시대에 소외되고 억압받는 약한 사람들과 만나 보호와 돌봄의 선교라는 측면으로 자각되는 것이지요. 그 자유를 제도적으로 강제하고 막는 것에 맞서 싸우는 것이 신앙의 길이고 학생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김하범(신학과 75학번, (주)도움과 나눔 이사) 씨가 옛 흔적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본관 앞 잔디밭

을 걸으며 말했다.

"한신대 학생운동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스승과 학생이 함께 투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되풀이 되는 수배와 연행, 휴업사태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수배를 받아 쫓길 때, 학장님은 공개적으로 학보에 '잡히지 말고 꼭꼭 숨으라.' 고 글을 쓰실 정도였으니까요."

1975년 반정부 시위와 1977년 4월투쟁 - '고난선언'

1975년 한신대의 봄 학기는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로 시작됐다. 150여명의 학생이 교내 침묵시위(3.26)를 벌였고 독재타도, 민주화, 인권회복을 위한 반정부 성토대회(4.1)에 이어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며 교내시위 후 가두 진출(4.3)을 시도, 경찰과 충돌했다. 이를 빌미로 문교부는 한신대에 휴업령(4.10)을 내리고 신학과 4학년 학생 12명을 제적, 안병무·문동환 교수를 학생운동의 배후 조종자로 몰아 해임

했다. 이때부터 학생들의 시위는 긴급조치 없이는 막지 못할 상황이 되었다.

4월 7, 8일 고대시위와 서울대 김상진 학생의 유신철폐를 요구한 할복자살, 그리고 5월 22일 서울대생들이 김상진 열사의 장례식을 거행하며 벌인 반유신 시위 등 이러한 사건 이후 서울과 전국의 학생운동은 소강상태에 빠졌다. 무엇보다 민청학련사건과 1975년 '봄의 투쟁'으로 학생운동의 중추 역량 대부분이 구속 또는 제적되어 학원으로부터 쫓겨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때부터 학생운동은 지하로 잠적하여 역량 비축에 힘을 쏟았다. 학생들은 소규모 지하 이념 서클을 조직하여 사회과학을 학습하면서 앞으로의 투쟁에 대비했다. 한신대 학생들도 선배들로부터 비밀스럽게 학습한 '민중교회운동'의 일환으로 소외된 민중의 삶을 체험하는 현장으로 속속 떠났다. 청계천의 영세 피복공장, 서울역 부근의 집창촌, 월곡동 달동네, 성남의 빈민촌, 인천과 안양, 부평 등지의 공장이었다.

1977년 4월 투쟁의 첫 봉화는 한신대에서 타올랐다. 한신대는 이 시기 학생운동의 독자적인 주력군 중 하나였다. 한 학년이 50여 명에 불과한 학교에서 20명이 넘는 긴급조치 9호 위반자를 낼 정도로 치열하게 싸웠다. 1977년 4월 7일 한신대는 학내 공조직인 학도호국단이 주동이 되어 고난주간 예배를 마친 뒤 '고난선언'을 낭독하고 시위를 강행했다.

"채플실에서 고난주간 예배를 드리는 중이었어요. 그때 학도호국단 단장이었던 이영재(신학과 75학번)가 선언서를 낭독했는데, 다 읽기도 전에 형사가 들어와 그를 끌고 나갔어요. 학생들이 울부짖었습니다. 뒤를 이어 김현수(신학과 75학번)가



집회나 공동체 모임에 학생들이 늘 모이던 학교 본관 앞 잔디광장에서 김하범 씨가 당시의 일들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성명서를 마저 읽다가 그마저 잡혀나갔지요.” 김하범 씨는 32년 전 ‘4·7 고난선언’이 있던 예배실 쪽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그 사건으로 그는 이영재, 김현수, 오용식, 정상시 등과 함께 구속되어 2년 여의 감옥살이를 했다고 했다. 덧붙여서 그는 정권이 학생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학생회를 해체하고 만든 학도호국단이 자발적으로 민주화투쟁에 나선 점 또한 특성이었다고 전했다.

아름다운 부활을 위하여 - 문익환 목사와 류동운 열사

한신대 수유리 교정 한편에는 늦봄 문익환 목사의 시비가 있다. ‘6월항쟁’ 20주년을 맞은 2007년에 건립이 결정돼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해 11월 11일 완공되었다. 시비는 일반적인 기념비 형태가 아니라 문익환 목사가 통일의 염원을 노래한 시 ‘잡꼬대 아닌 잡꼬대’의 글자 하나하나가 가로 1m 80cm, 세로 2m 40cm의 늦쇠조형물로 형상화되었다. 전태일 동상을 제작하기도 했던 민중미술가 임옥

상 작가의 작품으로 시비 기단에는 시비 건립에 참여한 1,420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한신인에게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모교이자 후학을 가르쳤던 한신대에 목사님의 시비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앞으로 목사님의 꿈이 이뤄져 평양이나 의주에 시비를 더 세우면 좋겠지요.” 그리고, 시비가 세워진 이 자리가 참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이곳을 제주도 기숙사라 불렀습니다. 규제와 억압에서 벗어난 해방구였고 둥그렇게 둘러앉아 노래하고 토론하는 아고라였습니다. 본관 앞 잔디밭과 마찬가지로 이곳도 그런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그걸 ‘잔디밭 메시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김하범 씨가 손가락으로 문익환 목사의 시비와 이웃한 작은 길 건너 어느 허름한 여관 건물을 가리켰다.

“그때 저 여관 2층엔 24시간 형사들이 잠복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며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엿따하기 위해서였지요. 여관 이름은 바뀌었는데 건물은 아직 그대로네요. 하, 하, 하…….”



지금은 이름이 바뀐 건물 2층 여관, 학생들을 감시하기 위한 경찰들의 거처였다고 한다.

취재를 끝마칠 무렵 그는 무언가 빠트릴 수 없다는 듯이 무겁게 다시 말을 이었다. “이젠 팔려 다른 이의 집이 되었지만 옛 기숙사를 보니, 5·18 민주항쟁에서 희생된 류동운(신학과 79학번) 후배가 생각이 납니다. 1980년 5월 10일인가, 학교가 휴교되어 기숙사에서 짐을 싸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방금 전 소설가 유채림(신학과 80학번)과 함께 본관 건물 뒤편에 있는 기숙사를 둘러본 터였다. 그는 1990년대 초 서사시집 『쑥대 설렁이는 해방산 저 기슭』(녹두출판사, 1991)의 필화사건으로 구속되었던 내 벗인데, 마침 나는 그에게서 한신대 학생운동에 관한 적지 않은 지식을 얻었다. 그는, 류동운 열사의 죽음은 예언자적인 전투성과 공동체성에 기반하고 있는 한신대 정신과 맞닿아 있기도 해서 한신대 학생운동의 전통을 잇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신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류동운은 5월 18일 시위에 참여했다가 연행되어 상무대에서 5월 22일 석방되었다. 석방되어 돌아온 5월 22일 광주에 공수부대가 퇴각한 후였으며 많은 대학생들이 시위로 피신해 있다가 계엄군이 외곽을 철저히 봉쇄하는 바람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다. 류동운 군은 집에서 쉬고 있다가 25일 도청으로 들어가 투쟁위원회에 참여한다. (중략) 그는 27일 새벽에 진입한 공수부대의 충격에 골반부를 맞고 피를 많이 흘려 사망했다. 『광주민주항쟁비망록』- 5·18민주항쟁유족회 편, 남풍출판 1989, 236쪽”



학교 특성 상 군인이나 형사들이 침범하지 못한 잇점 때문에 기숙사는 수배 걸린 학생들과 자유롭게 유인물을 만드는 공간이 되었다. 당시 남자 기숙사 건물 그대로이지만 지금은 외부에 팔려 학교 건물이 아니라고 한다.

집에서 잠시 몸을 추스른 류동운은 25일 선배의 비참한 죽음을 목격한 후 곧장 도청으로 들어갔다. 못 가게 붙잡는 목사인 아버지(류연창, 대구 봉산성결교회 원로 목사)에게 그는 말했다. “다른 집 자녀는 다 희생당하고 있는데, 왜 저만 보호하려고 하십니까? 역사가 병들었을 때, 누군가 역사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만 큰 생명으로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는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아들을 붙잡지 못했다. 27일 새벽, 류 목사는 뜬눈으로 밤을 새우며 기도했지만 끝내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류동운은 3일이 지나서야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복부는 총상을 입은 채 화상으로 검게 그을려 있었고, 군화로 짓밟힌 흔적이 얼굴에 남아있었다.

역사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최후까지 도청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고(故) 류동운 학우, 그는 오늘 한신인의 가슴에 참다운 생명의 부활로 살아있다. 한신대 수유리 캠퍼스는 이제 신학대학원의 교정이 되었다. 그러나 한신대의 민주화 운동은 1981년 오산(병점) 캠퍼스로 이전 되어서도 지속되었다. 

글 홍인기 | 1960년 출생. 한국작가회의 회원. 소설 창작집 『숲의 기억』이 있다.